‘팜파티’서 재미난 농촌체험

전남 새 비즈니스 모델 부상… 10월까지 20차례 계획

농촌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 채소 등을 맛보고 체험까지 즐기는 ‘팜파티’(Farm Party)가 농촌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화순군 한천면 ‘참새미농장’에서 자두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 등 팜파티를 열었다.

행사에는 참새미 농장과 인연을 맺은 고객 50여명이 참석했다.

커다란 자두 조형물이 눈길을 끄는 농장에서 자두 사진 모음전, 한춤공연, 촛불잔치, 한천초교 학부모회 엄마밴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자두 수확체험, 도자기에 농장 풍경그리기, 천연제품 만들기, 소원등 달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를 접목한 것으로 농촌체험관광에 파티를 결합한 농촌관광의 새 모델이다.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농촌문화를 도시 소비자와 교류함으로써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0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팜파티 개념과 이해, 기획, 고객관리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20여 차례의 팜파티를 열 계획이다. 9월에는 해남레인보우농장(오색쌀), 화순 청풍자연농원(감, 산더덕), 해남 청정농원(고추, 밤호박 등)에서 팜파티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농촌활력화를 위해 팜파티 마케팅 전략과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컬푸드’엔 신선한 농산물

여수·광양·나주 등 연말까지 농협 8곳에 직매장 개장

전남도는 지역 내 농협 등 8곳에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을 연말까지 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는 곳은 여수농협, 광양 원예농협, 나주 자연과농부들, 담양 고서농협, 화순 도곡농협, 장성 진원농협, 영암농협, 무안일로농협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자 참여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농협 등은 조합원과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과 기자재 등의 설치, 구입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농축산물을 뜻한다.

지역의 고령 농가와 영세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상설매장에 가져가 전시하고 농협 등 운영 주체가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직매장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출하 가능한 농가 조직화, 상품과 매장 관리, 지역 내 학교 등 기관, 단체와 소비자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협조, 직매장 사업 조직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소비자 참여, 홍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의 농산물 가격을 일반 소매가격과 비교한 결과 40~7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책버스 작은도서관’ 더위 쫓고 책도 읽고

광양시가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한 ‘그림책버스 작은도서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독서로 피서를 즐기고 있다. 8월5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 이번 작은도서관 이용객은 1720명에 달했다. 〈광양시 제공〉

여수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GS칼텍스 1조 유치 무산위기에 국회 찾아 건의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의 대규모 해외 투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서 보유지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일본 쇼와셸·다이요오일과 합작으로 1조원 가량을 투입해 파라자일렌(PX) 생산공장을 증설하기로 협약식(MOU)을 체결했으나 현행법의 규제조항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수상의는 25일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울산 SK 종합화학이 일본기업과 1조원과 1조3000억원의 투자유치협약을 각각 체결했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울산상의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를 찾아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수·울산상의 관계자들은 이날 여·야 정책위 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방문,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해외기업 투자유치가 절실한 실정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주회사 기준)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로 인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의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GS지주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는 파라자일렌 생산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일본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합작사가 GS지주의 증손회사로 분류돼 GS측의 100% 지분 보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담양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단 ‘孝’ 실천

담양에 정성으로 빚은 빵을 만들어 사랑과 효를 실천하는 봉사단이 있어 화제다.

담양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단은 매주 화요일 마을 경로당과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는 재능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한 제과제빵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2007년에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는 3명의 봉사자가 활동중이다. 이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빵 150여개를 만들어 읍면의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

회원이 적다보니 오전 내내 빵을 만들고 식히고 포장작업까지 마무리하기 바쁘면서도 매주 다른 빵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다양한 빵을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선희 회원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정성으로 만든 빵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볼때면 보람을 느낀다”며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재능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순교의 발자취 따라 600리 순례길을 걷다

전북서 세계순례대회 내달 28일 개막… 4대 종단 참가

600리 구도(求道)의 길이 전북에서 펼쳐진다.

세계순례대회조직위원회는 25일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불교 등 4대 종단 지도자와 신도 등 국내외에서 1만여명이 참가하는 순례대회를 다음달 28일부터 8일간 연다”고 밝혔다.

첫날부터 7박8일간 9개 코스로 나눠 240㎞를 걷고 폐막일인 10월5일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종교화합 한마당이 개최된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프랑스의 사르트르 순례길과 의미를 나누는 자매결연도 한다.

이 순례길은 각 종단과 연구원이 지난 2009년 전주~완주~김제~익산을 잇는 240㎞를 연결하면서 ‘아름다운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순례길 선포 이후 전국에서 해마다 1만명 가량이 이 길을 걸었다.

신도는 물론 일반인의 발길이 이어지자 문화재청은 이곳을 ‘2010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길’로 지정하기도 했다. 매달 1구간씩 나누어 순례하는 도보 카페가 마련되는 등 전국적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이 순례길은 성지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길이다. 포장도로가 아닌 골목길이 대부분이어서 찬찬히 걸으면 열흘가량 걸린다.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 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명의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연결된다.

이들 성지에서는 신부와 목사, 스님, 교무 등 각 종단이 깨달음을 전하는 종교 교류의 장도 마련되고 일부 교회와 절 등에서는 숙박도 할 수 있다. 성지를 잇는 중간에는 가람 이병기 생가와 강암 송성용 기념관, 최명희 문학관, 한옥마을, 만경강 갈대밭, 제남리 둑길, 고산천 숲 속 오솔길도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9월28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폐막식은 10월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로 다른 종교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탄생한 이 순례길을 걸으며 분열과 반목의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상업시설에 갇힌 전주 한옥마을

한옥 700채·상점 305곳… 슬로시티 위기

연간 500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골목길의 아기자기한 정취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선 상업시설 때문이다.

특히 한옥마을은 2010년 슬로시티로 지정됐지만 급격한 상업화로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일대 상업시설은 총 305곳에 달한다. 한옥마을의 전통 한옥이 700채이니 한옥 두 집 건너 한 집은 상업시설인 셈이다.

슬로시티로 지정될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년만에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 시설은 음식점 55곳, 커피숍 28곳, 전통찻집 17곳, 공예공방 70곳, 숙박시설 68곳 등이다.

전국 관광명소로 주목받으면서 관광객과 시민이 몰리자 한옥을 개조하거나 빈터에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선 결과다. 더구나 대부분의 상점이 아크릴 간판 등을 사용하면서 전통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한옥마을의 정체성마저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5년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에서 자칫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담과 대문의 기준 규격을 마련, 전통 이미지와 고유성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덕진공원 소나무 숲 복원

전주시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1970년대 덕진 연못 주변 사라진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복원한다. 이 숲은 연꽃과 함께 덕진공원의 대표 명물이었으나 1970년대 솔잎혹파리 등의 피해로 사라졌다. 사진은 1970년대 덕진공원 소나무 숲을 찾은 시민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농기센터, 내달부터 ‘분재 전문기술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원예분야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분재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달 13일부터 11월1일까지 7차례에 걸쳐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다. 분재의 의의와 종류별 특성 및 번식법 등 기본이론부터 월별 분관리요령, 가지치기, 철사걸이 등을 내용으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내달 6일까지 지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농축산업종합정보센터(http : //agri.jeongeup.go.kr)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63-539-626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초등 27개교에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

전주시는 26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27개교에서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쿨존 어린이안전지킴이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시간에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봉사단체 회원 55명이 각 학교에 안전지킴이로 배치돼 교통안전지도, 우범지역 순찰활동, 장애학생 보행도우미 역할 등을 맡는 사업을 말한다.

시는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안내자의 인솔을 받아 등하교를 함께 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관내 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고창배영농조합, 대미 수출 컨테이너 선적작업

고창배영농조합(대표 박형남)은 지난 23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대미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원앙배 13.6t(시가 4000만원 상당)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00t을 수출, 20억원이 농가소득이 전망된다.

지난 2003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고창배는 현재 캐나다, 미국, 대만, 싱가폴, 괌 등에 수출되고 있다.

수입업체인 동서농산의 한낙영 대표는 “미국에서도 배가 재배되지만 고창 배의 맛과 품질을 따라올 수 없다”며 “반응이 좋으면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 동계면 등 3곳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순창군은 25일 “동계면 주월·석산지구, 쌍치면 방산지구 등 관내 3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7억원이 투입되는 방산 재해위험지구는 하폭 확장, 제방 높이기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26억원을 들여 세월교를 재가설하는 주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며, 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석사지구는 지난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8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